

## 2015 슬로푸드국제컨퍼런스 「테라마드레」 우리 함께 슬로푸드 하자!!!

# 한국 슬로푸드운동의 어제와 오늘

김종덕

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 회장

이번 “2015 슬로푸드 국제페스티벌”(Asia Pacific Slow Food Festival 2015)은 한국슬로푸드운동의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슬로푸드운동을 대표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감개무량하게 생각합니다.

본인이 슬로푸드운동을 처음 접한 것은 2000년 10월 이탈리아 볼로냐에서 개최된 제 1회 슬로푸드 어워즈(Slow Food Awards)에서입니다. 이때 슬로푸드운동의 창시자이자 회장인 카를로 페트리니를 만났습니다. 이 행사에 참석하면서 슬로푸드운동의 중요성을 인식했고, 이후 한국에 슬로푸드운동을 알리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슬로푸드운동과 접하고 난후 <2015 슬로푸드 국제 페스티벌 대회>까지 15년이 걸렸습니다. 한국의 슬로푸드운동은 한국이 그러하듯이 단기간에 역동적인 발전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15년을 회고해볼 때, 쉽지 않은 길을 걸어왔습니다.

위기는 기회라는 말이 있듯이, 한국 슬로푸드운동의 발전 자양분은 한국의 열악한 농업환경, 먹을거리 환경입니다. 한국의 경우 농업부문 비중이 줄어드는 가운데 OECD 국가중 가장 낮은 식량자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옥수수 자급률 1%, 밀 자급률 2%, 콩 자급률 8%, 보리 자급률 24%, 전체 자급률(사료포함) 24%입니다. 도시국가를 제외하면 세계에서 가장 낮은 자급률 수준입니다. 한국은 GMO 식용 수입 1위 국가입니다. 한국의 주곡인 쌀 생산량은 425만톤인데 비해, 유전자 조작 농산물 수입량은 연간 사료용 900만톤, 식용 200만톤, 총 1,100만톤입니다. 주곡 생산량보다 2.6배 많은 양을 유전자조작 농산물을 수입하고 있고, 한국인들은 이러한 식재료로 가공한 음식, 사료로 사육한 단백질 고기를 섭취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전세계 라면소비 1위 국가입니다. 또 각종 인공첨가물이 많이 들어있는, 싸고, 맛있고 편리한 가공식품이 난무합니다. 이러한 식생활환경에 덧붙여 한국인들은 주곡인 쌀 구입 보다 커피 마시는데 10배 이상의 돈을 쓰고 있고, 청소년들은 음식보다 나이키를 명품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도시민들은 농민의 소중함을 모르고, 농민을 예우하지 않습니다.

FTA, TPP 추진에서 보듯이 정부는 농민을 배제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의 전개속에 농업과 먹을거리 환경이 점점 더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한국에서 슬로푸드운동을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운동이 되게 하고 있습니다.

한편 그동안 한국 슬로푸드운동의 발전과정에서 기회가 위기가 된 부분도 있습니다. 한국에서 슬로푸드운동이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2007년 슬로푸드문화원의 창립입니다. 이후 슬로푸드문화원은 남양주시와 MOU를 맺고, 지역 및 전국 차원에서 슬로푸드 교육을 중심으로 해서 슬로푸드 운동의 역량과 영향력을 키워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남양주시의 재정적 지원이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슬로푸드문화원은 남양주시와의 밀월관계 속에 국내 슬로푸드대회는 물론이고, 2013년에는 아시아 구스토 슬로푸드 국제대회를 성대하게 치렀습니다. 6일간 53만 5천명의 관객을 기록 했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행사를 치르면서 일하는 방식부터 내용에 이르기까지 슬로푸드문화원은 남양주시와 갈등을 겪었고, 대회 끝난후 결별사태로 이어지면서 처음부터 새로 시작하는 어려운 상황을 맞게 됩니다.

새로운 시작은 힘들고 어려웠지만, 전화위복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국제슬로푸드협회가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없이 일을 하는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외부 환경의 어려움은 회원들을 더 결속시켰고, 더 헌신적이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확인한 것이 국내슬로푸드대회인 <2014 슬로푸드 위크> 였습니다. 남양주시의 재정 지원이 중단된 가운데 민간역량과 회원들의 헌신적 참여로 2달 남짓한 기간에 멋진 행사를 만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자체 지원없이 민간 역량, 민간네트워크로 준비한 것이 내용면에서 훨씬 더 좋았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번 대회도 <2014 슬로푸드 위크>의 연속선상에서 준비했습니다. 국제슬로푸드 한국협회는 정부나 지자체의 재정적 지원이 거의 없는 가운데 이번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슬로푸드 회원이 900명 정도 되는 조직이 40개 국에서 180명의 슬로푸드 델리게이트들이 참석하고, 9개 컨퍼런스, 40개의 맛배움터, 맛의 방주 전시관, 주제관, 국제관, 체험관 등 각종 들을거리, 볼거리, 배울거리를 갖춘 5일간의 큰 국제대회를 개최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인데, 그럼에도 이렇게 큰 행사를 만들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이번 <2015 슬로푸드 국제페스티벌>은 국제슬로푸드 한국협회가 할 수 없는 행사입니다. 국제슬로푸드 한국협회의 재정, 조직, 회원, 지부역량을 볼 때,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국제슬로푸드 한국협회가 이번 행사를 개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두가지 이유때문입니다.

첫째, 이미 대회를 개최하기로 국제적 약속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국제적인 신뢰를 위해서 해야 만 했습니다. 이번 대회를 하지 않게 되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대표하는 국제슬로푸드 대회가 없어지는 상황도 고려해야 했습니다.

둘째, 한국이 직면한 농업, 먹을거리, 농부의 문제를 생각할 때 대회를 안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국의 농부들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전체 농가의 농업소득이 연간 평균 930만원이고, 게다가 농부들이 점점 더 노령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농부들의 이러한 실상을 알리고, 농부들에게 희망을 주는데 슬로푸드 국제대회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행사의 불가피성, 의욕만 가지고 행사를 할 수는 없습니다. 이번 행사를 준비하고 개최할 수 있었던 것은 한국슬로푸드운동이 세가지 힘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세가지 힘은 사실 한국 슬로푸드운동 발전을 가져온 동력이기도 합니다.

첫째, 슬로푸드운동의 힘입니다. 지속가능성 위기에 직면한 현실에서 다양성과 지속가능성을 지키고자 하는 슬로푸드운동은 다른 사회운동 보다 힘이 있습니다. 농업에 대해 접근하되 농업의 기본인 지역농업, 제철 농업을 강조하고, 음식에 대해서도 음식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땅, 물, 공기, 생물다양성, 건강, 전통지식, 경관, 즐거움, 관계, 나눔까지 다루는 슬로푸드 운동이기에 힘이 있습니다. 또 슬로푸드운동은 음식에 대해 전체론적 관점에서 다루기 때문에 환원론적 관점에 비해 강점이 있습니다. 특히 슬로푸드운동이 추구하는 먹을거리 공동체 복원을 위한 테라마드레 행사, 그리고 사라져가는 음식이나 품종을 지키고자 하는 맛의 방주 프로젝트는 사람들에게 이 운동의 중요성에 대해 설득력을 갖게 합니다. 이 시대 슬로푸드운동은 마치 종교와 같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종 슬로푸드 집회를 부흥회한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둘째, 슬로푸드 회원의 힘입니다. 그냥 회원이 아니고 일당 백 하는 회원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러한 회원을 미친 회원, 더 미친 회원으로 구분한 적도 있습니다. 개인적인 손해를 감수하고도 회원들이 헌신적으로 매달리는 데에는 앞에서 언급한 슬로푸드운동의 힘이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네트워크의 힘입니다. 회원 각각이 일당 백 한다고 할 때 그 바탕에는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또 회원 네트워크 말고, 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가 연대할 수 있는 농업 및 먹을거리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네트워크의 힘을 잘 보여준 것이 작년 12월에 국내슬로푸드 행사입니다. 이번 행사를 준비하면서 회원의 네트워크, 국제슬로푸드 한국협회가 갖고 있는 국내외 네트워크가 크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세가지 힘에다가 국제슬로푸드 한국협회가 현재 일상적으로 벌이는 다음과 같은 활동이 이번 행사준비에 크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 사라지는 음식과 종자 등을 지키는 <맛의 방주>에 등재
- 맛의 방주 생산자 공동체 지원인 프레시디아 등재
- 미각교육 실시(미각교육워크숍 및 음식교육)
- 국내슬로푸드대회인 슬로푸드위크(짜수년도) 개최
- 슬로푸드 회원모집 및 지부 결성: 현재 32개
- 아프리카 농장지원
- 슬로청춘(청년들의 슬로푸드운동) 지원
- 차 마시는 사회 캠페인(차인스티렉트협회와 공동)
- GMO 반대(다른 단체와 연대)
- 먹을거리 정의활동: 30인의 밥상
- 한국슬로푸드발효 사회적 협동조합
- 동물복지 지원

또 이번 대회를 준비하는데, 주관사 역할을 맡은 디자인하우스의 공로가 큼니다. 디자인하우스 이영혜 대표의 결정과 결단이 없었다면, 이번 행사를 준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번 대회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이번 대회는 명실상부한 국제슬로푸드대회입니다. 2013년 아시오 구스토 행사는 그 내용면이나 구성면으로 볼 때 슬로푸드운동의 철학을 담아낸 온전한 행사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지자체의 개입으로 인해 슬로푸드 철학을 구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슬로푸드운동의 철학을 담아서 행사를 준비했기 때문에 명실상부한 국제 슬로푸드 대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음식박람회 성격을 갖춘 행사지만, 기존의 음식축제와는 차별화된 국제대회라는 점입니다. 단순히 보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배울 내용을 갖춘 행사입니다. 전시하는 내용도 맛의 방주가 보여주듯이 슬로푸드 운동의 정신과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9개의 컨퍼런스. 40개의 맛 배움터가 보여주듯이 배울 내용이 있는 행사입니다. 또 행사를 준비하고, 운영하면서 슬로푸드 철학에 맞게 지속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진행하는 행사입니다.

셋째, 정부와 지자체 지원 없이 개최한 국제대회라는 점입니다. 한국에서 대부분 국제대회는 관 의존이 높습니다. 그리고 재정 낭비도 심한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역량을 활용한 국제대회, 행사문화, 지속가능한 행사는 이시대의 필요한 행사인데, 이 대회가 그러한

성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에서 국제 행사(대회)의 롤모델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번 대회를 치루고 난후 국제슬로푸드 한국협회는 회원, 지부, 국내 및 국제네트워크와 더불어 다음과 같은 일에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첫째, 한국의 농업과 먹을거리 문제를 해결하는데 힘을 더 쏟겠습니다. 슬로푸드 농가를 발굴, 지원하고, 먹을거리 공동체를 복원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둘째, 맛의 방주, 프레시디아 등재에 더 힘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는 2013년 8개 등재를 한 이후 2015년 상반기 기준 47개 맛의 방주를 등재했습니다. 프레시디아는 4개를 등재했습니다. 한국에서 사라지고 있는 종자나 음식 등을 고려할 때 슬로푸드 운동의 대표적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는 맛의 방주 등재를 더 확대하고, 이를 구심점으로 해 지부 슬로푸드운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맛의 방주 등재를 하면서, 요건을 갖춘 맛의 방주 생산자들 중심으로 프레시디아를 등재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셋째, 음식교육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국제슬로푸드 한국협회는 오감을 이용한 미각교육을 알리는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이제 슬로푸드 교육방법론과 선언문에 기초해 보다 체계적인 음식교육을 선보여야 하며, 소비자를 공동생산자로 바꾸는데 기여하는 교육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넷째, 슬로푸드 청년에 대한 지원입니다. 그동안 슬로청춘의 활동이 있었지만, 국제슬로푸드 한국협회의 지원이 거의 없어 활동이 저조했습니다. 청년이 움직이지 않는 슬로푸드운동은 운동의 미래가 없다고 보고, 청년들의 활동을 지원해, 이들을 슬로푸드운동의 미래 지도자로 육성하는데 힘쓰고자 합니다.

다섯째, 아태지역 네트워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번과 같은 슬로푸드 국제대회의 지속적 개최를 위해서는 아태지역 슬로푸드 네트워크가 강화되어야 하는데, 국제슬로푸드 한국협회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한국슬로푸드운동은 외형적으로 급성장했고, 화려해 보이지만,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과도기입니다. 과도기를 벗어나려면 한국 슬로푸드운동이 양적, 질적으로 향상되어야 합니다. 슬로푸드 회원수도 늘려야 하고, 지부역량도 증대해야 합니다. 재정 안정성도 확보해야 합니다. 이것은 국제슬로푸드 한국협회의 몫이자 지부의 몫이고, 회원모두의 몫입니다. 그동안 해왔듯이 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는 앞으로 길을 만들어가면서 나갈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을 지켜보아 주시고, 함께 해 주십시오. 경청에 감사드립니다.